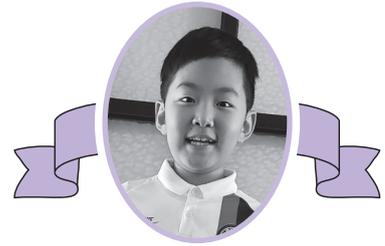


동상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아름다운 우리 국토



채준우 | 부천 상인초등학교 3학년

“우와! 멋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만나러왔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가슴 벅찼던 그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넓게 펼쳐진 성곽을 따라 걷다보면 정조대왕의 깊은 마음이 전해져온다. 벽에 기대어 그 마음을 오래 남기고 싶어 ‘정조대왕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라는 시를 쓴 기억이 있다. 이렇게 여러 곳을 여행 다녀 보니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 산이 많고 평야도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역마다 특색 있고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는 것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책에서 알게 된 태안반도, 우리 바다의 큰 아픔이 눈에 들어오게 됐다. 2007년 태안반도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났다. 원유를 가득 실어가고 있던 유조선이 충돌한 것이었다.

이 일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생물들을 아프게 했다. 많은 연구원들은 원래대로 회복하는 데도 몇 십 년이 걸린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렸다. 이것은 태안의 기적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불과 10년 만에 태안의 오염됐던 바다가 다시 생물과 동물들이 숨 쉴 수 있는 바다가 되었다. 이 태안반도의 바다가 유난히 더 내 눈에 들어왔던 이유는 얼마 전에 갯벌에 놀러갔을 때 ‘오염된 바다가 이렇게 깨끗하다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조개 껍데기에서 기름유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전 세계 친구들에게 꼭 자랑하고 싶은 우리나라 지역이 있다. 그곳은 바로 강릉이다. 강릉을 생각하면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벅차오른다. 우선 강릉의 가장 유명한 바다 ‘경포대’의 맑은 물, 소나무 숲 모두가 다른 바다보다 장관인 것 같다. 파란 바다와 초록 숲을 보고 있으면 눈이 저절로 맑아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 그 다음으로 강릉의 자랑 오죽헌은 조선시대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선 중기의 목조 건물이다. 이 예쁜 바다와 우리나라 전통 한옥이 어우러져 강릉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강원도는 유난히 산이 많은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운 산이 많은 태백은 내 아빠의 고향이기도 하다. 태백에는 높지만 아주 예쁜 산이 자랑거리이다. 특히 겨울이 되면 산에 눈이 소복이 쌓여 눈꽃이 핀 듯 아름다운 모습을 뽐낸다. 우리나라에 있는 곳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곳, 몰랐던 곳을, 엄마, 아빠와 함께 여행하며 하나둘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외국여행만 즐겁다, 멋지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국내여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나의 꿈은 작가인데 나중에 작가가 되어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여행지를 떠올리며 우리나라 국토를 소개하는 책을 쓰고 싶다.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의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차근차근 공부해나갈 것이다.

나! 채준우가 소개하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움.